東亞日報
十七日夕刊
本紙八面
編輯兼發行人 宋鎭禹
印刷人 金鐵(?)
發行所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株式會社東亞日報社
電話光化門 代表番號 一九〇〇
振替 京城八五五 七〇三〇
新聞價 廣告料

社說

當局의農民政策
—좀더根本的對策을세우라—

一

農村의 窮迫은 都市支配의 現代의 世界的 風災이 되어버렷다 朝鮮農村의 疲弊相을 돌아볼때에 우리는 그 險難함에 놀라고 잇는것이지마는 이를다시 全世界的으로 展望할때에 國의大小와 貧富를 莫論하고 農村問題가 爲政者의 머리를알케하고 잇는것을본다。 黃金의 나라라는 米國이 그러하고 中歐南歐의 諸國이 그러하고 印度 中國 日本等 東洋各國은 말할必要도 업다。 勞農의 執權을 試驗하고잇는 쏘베트聯邦에서도 農村政策은 重大한 問題로 恒常 支配府內의 理論衝突이 頻繁한 것을 본다。 다시 이를 橫으로 본다면 資本對勞働의 勢力의 抗爭에 잇어서 農民獲得의 爭奪戰이 或은 理論上으로 或은 實際的으로 演出되고 잇다 勞働은 農民에게 對國을 讓約함으로써 그를 自己의 陣營으로 끄을어 드리랴하며 資本家政府는 農村救濟의 여러가지 計劃을 세우고 이다。

二

朝鮮의 爲政者의 農村對策도 가장 典型的인 資本主義的 彌縫策에서 奔騰 벗어나지못하엿다。 數十年來로 農村의 沒落過程은 激甚한바가 잇섯다。 或은 急激한 土地兼倂의 趨勢를 促進하며 或은 都市勢力 또는 金融勢力의 農村吸取를 默過하며 產米增殖計劃의 偏頗的 決行에 依하야 生產은 增加하되 農民의 收入은 量이 어줄며 負擔이 日益增加하는 奇觀을 呈하엿다。 이러한 過程은 朝鮮의 資本主義化 過程이 「自然」에 맡기어둔 必然의 結果나 이미 先進諸國이 經驗하야 온 過程들이다。 今日에와서 當局者는 그 農村疲弊의 程度가 새삼스러이 큰것에 놀라며 小作爭議의 增加에 依하야 治安的 重大性을 깨닷게됨으로 비로소 農村關係의 諸對策을 세우게되엿으니 小作官의 設置며 小作爭議調停法의 起案 「農村振興」策의 講究等이 다 이러한 政策의 片鱗이다。

三

朝鮮統治當局者의 農民對策은 그 根本性質에 잇어서 彌縫的 이다。 一方大小 金融資本의 吸收를 放任하고 또 土地兼倂의 根本原因을 除去하려아니하며, 오직 紅爐點雪格인 自作農創定案이나 官製의 小作爭議調停機關에 依하야 農村의「治安」을 維持코저한다。 所謂副業의 獎勵며 勤儉思想의 鼓吹와 같은것이 現實의 冷風에 부닥칠때에 얼마나 無力한 것인가는 世界의 不況의 襲來로 副業品의 悲慘한 價格의 低落으로 一朝에 들어나고 말앗다。 明年度의 豫算面에 나타난 所謂「農村振興」의 政策이 當局者로서는 眞摯하게 案을 세워가지고 나온것인지 모르나 이를 보는 局外者에게는 好評하면 農村問題의 本質에 對한 認識不足이라 할것이고 惡評한다면 一種의 表面裝飾에 지나지안는다 하리만큼 된 計劃이다。 이러한 事實은 우리가 恒常말하는바와 같이 아모리 當局者가 애쓰드래도 現在 狀態에 잇서서 能力에 넘친다는 것이 朝鮮農村問題는 當局自身의 아 것이라는 評言이 適切한것을 確證한다 中小地主의 利益도 미처 保全하려 하엿도 評言이 아니라는 能力이 업다는것을 印象을 아니 줄수업다。 當局은 綻露시키엇다。 況 農民의 八割이 小作人 問題에야 實際로한 根本對策이 잇는가。 잇거든 具體的으로 보이라。 그 水利組合의 破綻과 거기關한 以上이 되다는 이에 果然當局은 어떠

第三回聯盟理事會 閉會即時秘密會議
席上브리앙議長의所論 何等決定업시散會

【巴里十六日發十七日午前四時十二分着聯合】 閉會僅 二十一分만에 閉會한 理事會公開會議閉會後 卽時秘密會議에 入하얏다

【巴里十六日發至急報十七日午前五時三十五分着聯合】 브리앙議長은 理事會秘密會議에서 如左히 述하얏다

滿蒙問題解決에 關하야 日本의 基本大綱中第五項 卽日中條約은 民國이 承認하는件에 關하는것이 右에 關하야 協定에 到達하게 될것가트면 當然問題의 解決에 到達할것이다 又民國代表는 此秘密會議에서 簡單히 發言하얏다

【巴里十六日發電通至急報】 十六日午後四時半부터 秘密會로된 理事會에서는 브리앙議長으로부터 更히各國의 協力의必要를 强調한後 今回의 理事會에는 米國의 傍聽者出席이업스나 또스大使는 特히理事會를 爲하야巴里에 滯在中으로 同氏의滯在는 理事會의 審議에對하야 偉大한精神的援助가되는것이다 라述하고 施肇基氏는 民國은 難局에當面하기 玆에二個月에及하나 아즉何等解決의 曙光조차보지못하얏다 予는 가장迅速히 問題의解決을 要求하야 마지안는다 라述하얏는데 日本代表는 終始沈默을지키고 何等의發言을하지안헛다 理事會는 更히今回의 巴里會議의費用을 如何한方法으로 支出할가하는問題及今後議事方法에 對하야 審議하고 午後五時二十分에 散會하야 同案을喫하얏는데 次回는 目下데잇어서 火曜日午前에 繼續하야 秘密會議를 開하기로되엿다

散會後芳澤大使談

【巴里十六日發電通】 秘密理事會散會後 日本代表芳澤大使는 記者에對하야 如左히말하얏다

本日의 秘密理事會에서는 아즉何等決定的解決案은 提案되지안헛스나 이미難局은 起하얏다 그러나 브리앙議長은 今夕更히 私的會議를 한다고 提議하얏슴으로 晚餐後此를 行할터이다

秘密會議停滯 私的會商必要
一點에對하야依然意見不一 正式聲明書를發表

【巴里十六日發電通】 秘密理事會散會後 理事會는 正式聲明書를 發表하얏는데 右聲明書에 依하면 秘密會議에서 十月二十四日의 理事會 決議案과 日本의 提出한 決議案은 最初의 四點에잇어서 서로 一致하고 잇다고 强調하얏스나

一、民國의提示한安全保障의解釋
二、滿鐵附屬地에關한日中條約의效力에對한解釋

二點에對하야는 依然 意見의 一致를 보지못하고 이까닭에 會議는 벌서 停滯에 逢着하야 私的會商을 必要로 하게되것을 示하고잇다 又 理事會後 施肇基氏는 英國代表 사이몬外相과 長時間 會議하고 芳澤大使도 브리앙議長과 私的交涉을 行하얏다

次回公開會議未決 秘密會議에서決定

【巴里十六日發十七日午前四時十九分着聯合】 聯盟理事會秘密會는 前後二十分만에 午後五時散會하얏는데 十八日外지에 開하는與否가 決定되지안코 秘密會에서 相當和協的論議를 繼續할希望이 잇는 以後 公開會議는 再開되리라 觀測된다

또스氏今週後半부터出席

【巴里十六日發至急報十七日午前五時三十五分着聯合】 米國大使또스氏는 十六日의 理事會에 豫外的으로서 列席하지 안헛는데

傍聽도아니한 또스大使

【巴里十六日發十七日午前四時着聯合】 十六日의 理事會에 傍聽者의 期待를 어기어 米國大使 또스大使는 傍聽者로서도 列席하지안헛다

伊外相華府着

【華盛頓十六日發電通】 伊太利外相 그란디氏는 十六日午後五時五十二分 華盛頓着 大統領官邸에 入하얏다

英米와交涉 松平、吉田兩氏 芳澤大使代로

今週 後半에 至하면 理事會에 出席할 貌樣이다

【巴里十六日發聯合】 芳澤大使를 補佐키爲하야 現地에出張한 松平吉田兩大使는 外國側特히英米兩國과의 交涉에 當하기로되엿다

「브」議長、私的會談으로 解決案發見을切望
各國代表의訪問으로 奔忙한또스氏호텔

【巴里十六日發電通至急報】 本日午後의理事會는 旣報와如히 何等決定的解決案의 提示를 보지못하고 一種의 沈滯狀態로 散會하얏는데 브리앙議長은 各國代表에對하야 私的會談을 遂行하야서 解決點을 發見하기를 切望하는同時에 各國代表間에 協力協調를 要望하얏다 또스大使는 今朝來로 호텔에 들어안저서 各國代表의 訪問에 對하야 一一히 同氏의 室에 招하야 意見을 交換하고 同氏의 室은 宛然 官廷의 觀을 呈하얏다 브리앙議長은 此種의 私的會合에 依하야 어떠한 局面展開의 方式을 得하고저하는것과 並하야 今夜부터 明日外지 或은 佛國外務省에서 或은 各省의 室에서 各各個別의 會談을 遂하고 其若會談의 結果交涉이 進展하면 卽時公開會議를 開하게될듯한데 其時外지에는 理事會는 열릴지라도 秘密會議로될것이다

(寫眞은 또스大使)

브議長의報告演說
理事會會場의光景

【巴里十六日發電通至急報】 全世界의 注目을 集中케한 聯盟理事會는 드디어 本日午後四時七分 佛外務省에서 브리앙議長아래 開會되엇다 會場은 往年 巴里講和會議 第一回會議가 開催되든 가장 由緖기픈 時計室로서 왼손、클레망소、로이도 조지氏等 當時의 世界的大政治家가 世界大戰後 終結을지우기 爲하야 高遠한理想을 說하고 世界改造의 第一步를 擧한 場所로서 聯盟도 亦是 이 室에서 生한것이다 爾來十二年을 經過한 今日 世界의 大政治家가 日中紛爭을 解決하고저 玆에서로會合하게된것은 一種의 奇緣이라 고도할만하야 同時에 緊張에 그러케 多數한 大政治家가 擁集한것은 實로 平和會議以來 처음이다 眞紅빗의 카페트와 金色이 燦然한 時計室은 莊嚴하얏다 各國代表는 一名式中央의 테불에 着席한다 日本은 芳澤大使가 代表로서 着席하고 民國代表 施肇基氏는 그 反對側에 着席하얏다 日本側松平大使以下는 芳澤代表 後方에 着席하자 民國側은 施肇基代表 後方에 着席하야 日中이 相對하얏다 英國側은 사이몬外相이 代表로서 着席하고 그後方에 座하얏다 米國의 또스大使는 出席치안코 米國人으로는 施肇基代表의 顧問인 위르트氏와 聯盟事務局의 役員스위트氏가 出席하얏슬뿐이다 午後四時七分에 브리앙議長이 開會를 宣하야 聯盟理事會의 義務를 强調하고 且聯盟事務局 役員等이 巴里에 出張하야 와슴에 對하야 謝辭를 述하고 一九一九年에 此屋에서 當時의 首相크레만소氏가 議長으로서 聯盟規約을 決定한 事實을 回顧하얏다 獨逸代表 폰부로氏는 브리앙議長에 敬意를 表하고 브리앙議長은 此에對하야 謝辭를 述한後 前回의 理事會以後의 日中紛爭의 經過報告書를 朗讀하얏다

(寫眞은 브리앙氏)

予는 日本이 九月의 理事會의 決議를 承認하고 施肇基代表가 九月及十月의 決議를 確守하는旨를 確約하얏슴은 感謝하는바다 日中紛爭은 不幸하게도 아직 解決을 보지못하얏스나 理事會는 今後라도 紛爭解決에 努力할것이다 라고 述하얏다 다음으로 獨逸代表 폰·뷰로氏 英國의 사이몬外相 相交起立하야 브리앙議長의 努力을 謝하는同時에 各自國政府는 가장緊密한 協力을 하고저 誓約하고此로서 公開會議를 終하야 秘密會議에 入하기로 하얏는데 此는 四時三十分이엇다

【巴里十六日發至急報十七日午前四時十二分着聯合】 十六日의 理事會 開會式에 있어서의 演說에서 브리앙議長은 먼저 새로 參加한 英國代表 사이몬外相과 獨逸代表 폰뷰로外務次官의 歡迎辭를 述한다음에 前回의 理事會議以後의 滿洲狀態에 關하야 日中兩國으로부터 事務局에 提出된 各通牒에 言及하면서 經過를 略述하고 日本側에 關하야 如左히 述하얏다

日本은 十月二十四日의 理事會決議案에 贊成하지 안헛는데 그우에 日本政府는 九月三十日의 理事會竝 其他機會에 日本代表가한 諸留約을 實施할 用意를 가젓다 言하야 此를 强調하고 繼續하야 브리앙議長은 民國代表 施肇基가 民國은 聯盟規約下에 잇서서 모든 義務를 履行하야 條約의 解釋問題에 對하야는 仲裁裁判에 附할 用意가 잇는 旨를 通牒한 諸條約을 引用하고 更히 如左히 述하얏다

余는 十月二十六日에 五個의 基本大綱에 關한 日本政府의 通牒을 接受한 余는 此를 仔細히 精讀한後 初四項은 理事會 決議案中에 規定되어 잇다 第五項에 對하야는 余는 施肇基氏의 發言을 發見하얏다 余는 諒解에 到達할 餘地가 잇다고 思惟한다 滿洲의 軍事狀態竝 撤兵에 關하야 余는 日中兩國政府로부터 多數한 通牒을 接受하고 잇다 日本政府는 施肇基氏의 討論을 가지고 條約의 效力問題를 云云한것이라 指摘하야 此等諸條約에 疑義잇슬 理致가 업다고 問題로 삼음을 拒絶하고잇다 然而 理事會는 各種警告的 提案에 影響됨이 업시 日中問題의 討議를 繼續하야 聯盟規約의 諸原則을 從한 決議함이라 述하얏다 브리앙議長의 報告演說의 다음에 사이몬外相은 日中問題解決에 協力할 것을 言하고 이미 愼重協議의 多數의 問題가 있슴으로 暫時 公開會議를 閉하야 秘密會議를 開하야 審議의 進行에 便利하다고 생각 한다 이라 述하고 다음으로 獨逸代表 뷰로次官이 同樣의 人事를 한後 브리앙議長은 公開會議를 閉會한後 卽時 秘密會議에 入하기를 提議하얏는데 全員一致可決 四時二十七分 公開會議를 閉會한後 卽時 秘密會에 入하얏다

一般은大失望
몰려든記者五百名 廿二分만에散會로

【巴里十六日發電通至急報】 聯盟理事會議場으로 指定된 佛國外務省時計의 一室은 그다지 廣大하지 안흔 一室이나 當日歐洲各國에서 모여든 新聞記者는 無慮 五百名에 達하고 一般傍聽者는 大使夫人으로부터 外交官 한 傍聽者로 大滿員을 이루엇다 世界各國에 알리고저하는 記者는 騷然 形容할수업는 混雜을 呈하얏다 브리앙議長의 演說은 光景을 展開되는 議場에서 겨우二十二分만에 秘密會議로 되어 失望의 빗을 감추지 못하얏다

十七日中에는 歸趨가判明?
日本側은새로請訓

【巴里十六日發聯合】 今日의 會議하고 事件解決案에 對하야 松平吉田兩大使는 午前中에는 米國의 또스大使와 午後에는 英國의 사이몬外相 드라몬드 事務總長 等과 種種協議를 遂하얏다 日本側의 觀察로서는 또스大使는 어떠케든지하야 事件을 解決코저 하는 意向을 決하고잇는 듯하며 他各國理事도 前回와 달리 甚히 沈着한 態度로잇다 此形勢에 民國側은 차차 狼狽한 貌樣으로 如何間 十七日의 會議에 依하야 事件의 歸趨가 判明될 模樣이다 日本側은 各理事의 意思를 아는 意思로 日本側은 本省에 새로 請訓하게될 貌樣이다

日貨不買의 標語貼出을 組合에通達

【上海十六日發電通】 抗日救國會는 附十五日 各組合에 對하야 「組合에서 本店不賣日貨」의 標語를 印刷하야 各店頭에 貼付하라」고 通達하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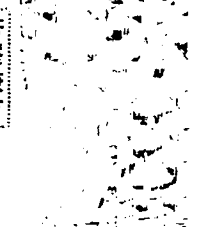
日本의承認하는 實力잇는將軍任命
在滿日本人의生命財產保護 理事會、中國에要求?

【巴里十六日發電通】 探聞한바에 依하면 聯盟理事會는 滿洲에서의 日本人의 生命財產保障을 爲하야 民國에 對하야 日本이 承認하는 精神的 支持를 與하고 實力을 有한 將軍을 새로 滿洲에 任命하기를 要求한다 委員을 任命하는것보다 適切하다고 觀測된다 現在와 如히 日中雙方이 兩軍의 衝突責任을 轉嫁하고잇는 以上 日本人의 生命財產의 安全을 保障함은 不可能할 것으로 此解決法에 依하야 日本은 滿洲에서 平和的 發展을 하게된다고 한다

滿洲事件中心하야 活躍하는 重要人物【下】

施肇基 氏의字는 植之 江蘇省吳縣 出生으로서 當年五十三歲의 中國天才 外交家中 一人으로서 今番國際聯盟의 中國代表者이다 氏는 일즉一八八三年 上海聖約翰大學을 卒業하엿다 氏는 在學當時 學生의 主宰인 「約翰聲」의 主筆로 週間雜誌인 마음것文章으로 그러 보앗다한다 一八九三年 氏는 米京華盛頓에 中國公使館通譯生으로 任命되어 一八九六年으로부터 一八九六年 外지勤務하며 華盛頓高等學校에 通學한後 一八九七年 코넬大學에 入學하야 一九〇一年 同大學을 卒業하며 文學士의 位를 得하고 翌年에 碩士의 學位를 受하엿다 氏는 米國大學生活에 잇스면서도 附校學生雜誌인 「코넬」의 評論記者의 一人으로 그의思想、그의文名을 米國學生에게 外지 알려어 주엇다 一九〇二年 氏는 歸國하얏다 歸國하자 即時 湖廣總督 張之洞의 聘에 依하야 西湖交涉事에 任命、一九〇四年 西江總督端方에 任命되어 京漢鐵路總辦에 任命되엇다가 一九〇七年 北方 鐵路總辦이 되엇다 이를辭任한後 氏는 暫時 哈爾賓海關員이 되엇다 一九一〇年六月 外務部左侍郎이 되엇다 翌年八月에 昇進하야 國際防疫會議가 開催되엇을때 中國代表로 氏가 出席하게되엇다 一九一一年 奉天에 中國革命의 直前 氏는 米京 큐바、페루公使로 任命되엇섯스나 實現되지 못한채로잇다가 唐紹儀內閣當時入閣 交通總長兼財政總長에 任命되는 同時에 大總統府大禮官兼顧問이 되엇다 그後一九一三年 駐英中國公使가되어 奉職中 一九一九年 大戰에 끗나고 巴里에 講和會議가 開催됨에 中國代表로 出席하얏다 一九二〇年 二月 氏는 米國公使에 轉任되엇다 그러하야 그翌年 華盛頓會議에 中國首席全權代表로 出席하얏다 氏의 功勞에 依하야 氏는 一等文虎章을 受하고 그翌年에는 一等大綬寶光嘉禾章과 勳二位를 受하얏다 同年六月에 氏는 콜럼비아大學에서 名譽學位인 「엘엘의位를 受하얏다 一九二二年 十一月 歸國 그後 外交總長이 되엇스나 當時 惡政潮가 澎湃하게됨에 氏는 再次辭米公使로 米國에 在駐하다가 그後다시 英國公使로 轉任하야 今番會議에 代表로 出席하게 되엇다 氏는 往年 華盛頓會議當時 不

芳澤謙吉 氏는 新潟縣生으로 今年 五十八歲라한다 氏는明治三十二年 東大英文科를 卒業後 三十二年 外交官領事官試驗에 合格하야 同年 外交官補로 朝鮮에 駐在한 일도 잇엇다 同三十三年 領事官補로 中國廈門、上海、中莊、倫敦等地에 駐在하엿스며 同卅九年 領事로 昇進되어 香港에 잇다가 그後 外務省參事官、外務書記官、政務局第一課長을 經驗하고 明治四十三年 大使館一等書記官이 되어 英國에 駐在하엿다 大正元年 漢口總領事、同三年 外務省人事課長、同五年 中國公使館參事官、同八年 外務省政務局長、同九年 亞細亞局長兼歐米局長等에 歷補、同十二年 特命全權大使에 任命되어 中國에 駐在하엿다가 現下駐佛大使로 今番理事會에 日本代表로 出席하게 되엇다 氏는 일즉 中國公使로 駐在하엿슬째 그所謂「淸涼居士」라는 別名外지 가진 中國通의 唯一한 外交家이다 氏는 五卅年이나 中國革命初創期에 活躍하든 人物로서 關稅會議當時 日置全權補佐、對中治權委員、濟南漢口事件善後處理에 關한 基礎的解決案作成、滿洲五大鐵道敷設權에 關한 敷設契約의 調印等 中國最近에 이러난 重大案件에 芳澤氏가 加入하지 아니한것은 업다고한다 如斯한經驗의 所有者인 氏로도 國際的 大論爭에 臨하야 一時 四面楚歌의 理事會에 政治家의 側面的折衝에 奮鬪한 松平 吉田 兩大使의 補佐는 莫大하겟지마는 中國代表施氏를 相對로 局面轉換을시 ...



在津兩軍의防備를撤廢
正式으로覺書交換

【天津十六日發聯合】 昨夜日本駐屯軍司令官香椎中將과 王樹常氏와 會見하야 天津日中兩軍의 防備撤廢에 對하야 民國軍의 撤退에 對하야 正式公文을 交換하얏는데 民國側으로부터 本日 日本側에 覺書를 交付할 것으로 되어 調印을 了하얏다

飛行隊急派
北滿形勢險惡으로

【東京十六日發電報聯合】 北滿의 對策을 考究中인 陸軍當局에서는 北滿의 形勢가 切迫하야 兩三日中에 日中兩軍의 衝突이 必至의 形勢에 이르러 日中兩軍會戰의 兆가 顯然하야 現在 大興附近에는 戰鬪의 急派를 斷行하는 外에 他道가 無하다하야 目下熟慮中이다 席上에서 論爭을 하면 自然險惡에 他道가 無하다하야 目下熟慮이다

拓務省廢止 十二月限으로

【東京十五日發電通】 拓務省 ... 十二月限으로 廢止하기로 內定하엿다

不遠攻勢에轉하려고 張學良軍도移動中
一部는新民갓가히進出

【東京十七日發電通】 陸軍省着電 北寧線方面에 잇서서의 張學良軍은 近近 攻勢에 出할 命令을 受하야 着着 移動準備中인데 其一部는 新民갓가히 進出하고 잇다 尙且 武器彈藥은 吉林省 各縣과 錦州에 對하야 連日 輸送하며 命令하얏다고 한다

陸相首相協議
北滿形勢와 聯盟問題로

【東京十七日發聯合】 南陸相은 十七日午前八時三十分 首相官邸에 若槻首相을 訪問하고 北滿의 形勢竝 天津에 잇서서의 狀況及 北滿地方의 形勢가 險惡하야 交涉에 關하야 詳細한 報告를 한後 北滿 形勢推移에 作하는 對策에 對하야 協議를 行하고 다시 國際聯盟理事會의 經過를 中心으로 種種 懇談을 遂하야 會見 一時間餘에 同九時四十分에 辭去하얏다

山海關人心動搖

【天津十六日發電通】 山海關에 最近 暴動發生의 流言이 잇서 人心이 動搖하야 同地에 在留日本人은 十五日 日本守備隊에 避難하얏다

消息

▲三好有三氏(朝鮮殖產銀行理事) 本社來訪
▲長島弘帝氏(朝鮮發明協會理事長) 同上
▲京城洗心氏(京城商工會議所常務取締役) 村田氏本社來訪
▲山野升松氏(大阪杉村商會京城出張所) 永田用黎發明表彰人事次로本社來訪
▲荒井初太郎氏

로크發明表彰바든人事次로本社來訪

橫說竪說

「一家猶不失, 火入用心」이라고 쏜 불은 碑가 三溝洞入口에 버티고 섯 것을 보고 一朝鮮人曰 『좋 무슨 소리야? 요새에 날이 추우니 불조심하란 말이로군』 하고 옷을 이러케 쓰엇다 ▼「一家猶不失、火の用心」이라는 것과 朝鮮語이다 ▼朝鮮文은 전혀 내어라는 글에만 쓰는 것이 아니 ... 當局者의 一失敗 ▼그렇지 아니하면 볼 조심은 日本말아는 사람에게만 必要하단 말인가 ... 된다。

◇號外發行◇

滿洲事變에 關하야 本社는 今日 一回의 號外를 發行하얏습니다